

몸 지키기 첫 약속

겁주거나 시험하지 않고, 어른이 경계를 존중하는 일상에서 시작합니다.

권리

내 몸은 내 것이예요

“네 몸은 네 것이야. 불편하면 멈춰 달라고 말해도 돼.”

안기·뽀뽀를 강요하지 않고 손 흔들기, 인사말, 하이파이브 같은 선택을 줍니다.

명칭

몸의 정확한 이름

눈·코·무릎처럼 음경, 음낭, 외음부, 질, 항문, 가슴을 정확히 부릅니다. 외음부는 겉에서 보이는 부분, 질은 몸 안쪽 통로입니다. 놀리거나 부끄러운 말로 만들지 않습니다.

경계

수영복으로 가리는 구역

“수영복 안쪽은 사적인 곳이야.” 돌봄·진료가 필요할 때는 어른이 이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허락을 구하며 보호자가 함께 합니다. 수영복 밖이라도 불편한 접촉은 말해도 됩니다.

행동

말하기 · 벗어나기 · 알리기

“싫어요, 멈춰요”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믿을 만한 어른에게 알립니다. 한 사람이 듣지 않으면 다른 어른에게 다시 말합니다. 얼어붙어 말하거나 움직이지 못해도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연령별 대화 · 1~4세

한 번에 많이 설명하기보다 생활 장면에서 한두 문장을 반복합니다.

1~2세

돌봄을 예고하고 이름 들려주기

기저귀를 갈거나 씻길 때

"기저귀를 갈게.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만질 거야."

"음경을 닦을게." / "외음부를 닦을게."

아이가 몸을 피하면 가능한 잠깐 멈추고, 필요한 돌봄의 이유와 순서를 다시 말합니다.

2~3세

수영복 구역과 멈춤 말 연결하기

옷을 갈아입거나 수영복을 볼 때

"수영복 안은 네 사적인 곳이야."

"불편하면 '멈춰요'라고 말해도 돼."

인형에게 인사시키며 손 흔들기·하이파이브·포옹 중 하나를 아이가 고르게 합니다.

3~4세

도움을 청할 어른 찾기

평온할 때 믿을 만한 어른 2~3명의 이름을 말해 봅니다.

"엄마가 바로 없으면 누구에게 말할까?"

"불편한 비밀은 말해도 되고, 말해서 혼나지 않아."

무서운 상황을 자세히 상상시키지 말고 일상 장면에서 짧게 연습합니다.

어른의 모델링

"안아도 될까?"라고 묻고 아이의 '아니요'를 존중하는 모습 자체가 경계 교육입니다.

연령별 대화 · 4~7세

예외, 비밀, 온라인 경계를 더하되 아이에게 안전 책임을 넘기지 않습니다.

4~5세

돌봄·진료의 예외와 비밀

“의사나 돌보는 어른이 몸을 보거나 만져야 할 때는 왜 필요한지 먼저 설명해야 해.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있을 거야.”

“선물처럼 곧 알려질 깜짝 비밀과 달리, 무섭거나 불편한데 말하지 못하게 하는 비밀은 바로 어른에게 알려 줘.”

5~7세

사진과 온라인 경계

“옷을 입었어도 몸 사진을 찍거나 보내 달라는 부탁은 거절하고 바로 알려 줘.”

“누가 보여 준 사진이나 영상 때문에 불편해도 말해도 돼.”

“이미 눌렀거나 보냈어도 네 잘못이 아니고, 혼내지 않고 도울게.”

모두

한 사람이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하기

“믿을 만한 어른에게 말해. 그 어른이 못 들었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어른에게 다시 말해.”

아이와 함께 보호자, 교사, 친척 등 도움을 청할 사람의 이름을 정합니다. 의심되는 사람이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도록 어른이 관계와 환경을 살핍니다.

기억할 점

거절하거나 도망치지 못한 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호 책임은 언제나 어른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말했을 때 · 어른의 카드

조사보다 믿기, 즉각적인 안전, 전문기관 연결이 먼저입니다.

응답

처음 네 문장

“말해 줘서 고마워.”

“네 잘못이 아니야.”

“나는 너를 믿어.”

“안전하게 도울게.”

놀란 표정으로 다그치지 말고, 아이가 쓰는 말과 속도를 따릅니다.

보호

해야 할 일

- 아이와 형제자매의 즉각적인 안전을 확보합니다.
- 아이가 자발적으로 한 말은 가능한 그대로 낱파와 함께 적습니다.
- 기관 종사자는 아동보호 절차와 신고의무를 따릅니다.
- 현재 위험하거나 범죄·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합니다.
- 성폭력 피해 상담과 지원기관 연결은 136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하지 말아야 할 일

- “왜 도망가지 않았어?”, “정말 맞아?”라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자세한 행동을 재현하게 하지 않습니다.
- 비밀을 지켜 주겠다고 약속하지 말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만 알려겠다고 설명합니다.
- 의심되는 사람에게 먼저 따져 아이를 더 위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긴급신고 112 · 성폭력 피해 상담 1366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면 혼자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경찰 또는 전문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